

7월 선정도서 목록

〈2014년 7월의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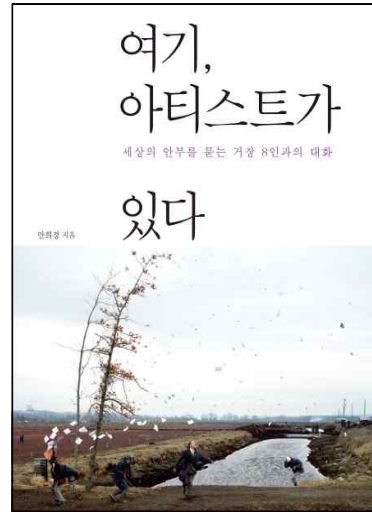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추천자
문학 예술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	안희경	아트북스	2014.05.30	이현우
인문학	명성황후 최후의 날	김영수	말글빛남	2014.05.08	김문식
	친구들과 함께 하는 64가지 철학 체험	로제 폴 드루아/ 이나무	이숲	2014.05.20	이진남
사회 과학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베른하르트 부엨/ 유영미	뜨인들	2014.05.28	왕상한
	콘트래리언	이신영	진성북스	2014.06.09	전형구
자연 과학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지	샘 린/이충호	해나무	2014.06.10	이한음
유아 아동	도플갱어를 잡아라!	이윤 글, 홍정선 그림	웅진씽크빅 (웅진주니어)	2014.05.28	김대경
	꽃살문	김지연 글, 그림	느림보	2014.05.26	이상희

문학예술 분야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

안희경/아트북스

2014.5.30. 발행/256쪽/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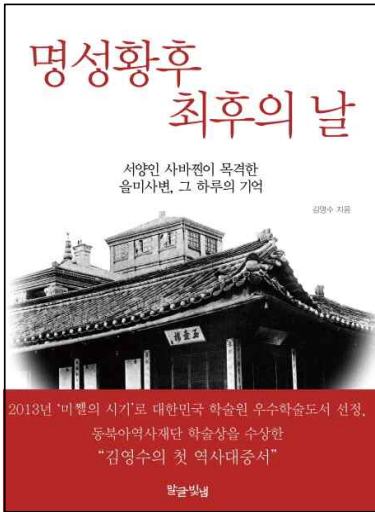


‘세상의 안부를 묻는 거장 8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한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는 제목 그대로다.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 8인과의 대화 기록이면서 그들의 작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 보고이고, 다시 그들의 작품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에 대한 성찰이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크리스티아 불탕스키, 아네트 메사제, 윌리엄 켄트리지, 키키 스미스, 강익중, 제프 월, 무라카미 다카시 등. 동시대 미술에 밝지 않은 독자에게 대부분은 낯선 이름들이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업의 핵심으로 바로 진입해 들어가는 저자의 인터뷰 기록은 이들이 왜 우리시대를 대표할 만한 거장들인지 쉽게 납득하도록 해준다. 구 유고 연방 출신의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 ‘예술가가 여기 있다’가 좋은 사례다.

2010년 뉴욕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이 퍼포먼스에서 마리나는 3개월간 매일 미술관이 열리는 아침 10시부터 문이 닫히는 오후 5시까지 아트리움에 앉아 있었다. 이 일곱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관객은 맞은 편 빈 의자에 한명씩 돌아가면서 앉고 싶은 만큼 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석 달, 736시간 동안 이어진 이 퍼포먼스에 매일 7,000여 명씩 몰려들었다. 5분, 또는 다섯 시간이나 일곱 시간 동안 예술가와 마주앉아서 관객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까. 마리나는 자신이 그들의 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을 자임했다. 관객은 그 거울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고통을 반추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앉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려던 모든 것이었어요.”라고 마리나는 말한다. 책은 바로 그런 예술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추천자 : 이현우(인터넷 서평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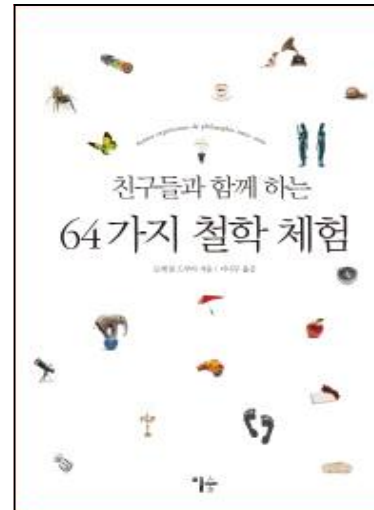


명성황후 최후의 날
김영수/말글빛남
2014.5.8.발행/271쪽/13,000원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 군대가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때부터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일본인의 움직임을 살피려고 경복궁에 외국인을 상주시켰다. 경복궁에는 항상 두 명의 외국인이 체류했고 그 중에는 러시아인 사바젠도 있었다. 그는 독립문, 손탁호텔, 러시아공사관, 덕수궁의 정관헌과 중명전을 설계한 건축사였다. 사바젠은 1주일에 4일씩 저녁에 향원정 오른쪽에 있던 위병소로 출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이 책은 사바젠의 기록을 바탕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현장을 시간대별로 재현했다. 1895년 4월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위축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멀리하고 러시아를 가까이하는 외교정책을 폈다. 일본은 이런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대원군을 내세우며 김홍집에게 친일 정부를 조직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월 7일 오전에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훈련대를 해산시킨다는 왕실의 명령이 전달되었다. 미우라는 일본 교관이 훈련시킨 훈련대를 해산하는 것은 친러시아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 판단하고 정변을 일으켰다.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던 일본의 수비대 600명, 해산 명령을 받은 훈련대 800명, 일본 자객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대원군을 앞세운 침략이었다. 궁궐을 지키던 시위대가 맞섰지만 이내 무너졌고, 침입자들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던 건청궁으로 돌진했다. 명성황후는 곤녕합 침실에서 궁녀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건청궁 복도를 향해 도망갔고, 뒤따라가 시해한 사람은 일본 공사관의 순사였던 와타나베 다카지로였다. 지금까지 명성황후의 시해범은 민간인 출신의 일본 자객으로 알려졌지만, 사바젠의 기록을 볼 때 일본 공사관의 판료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 추천자 : 김문식(단국대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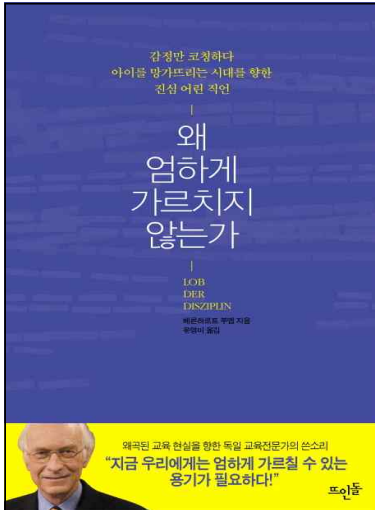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 하는 64가지 철학 체험
로제 폴 드루아/이나무/이숲
2014.5.20.발행/208쪽/14,000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당혹감 혹은 놀라움(thaumazein)이라고 했다. 나와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해 경이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질문과 답을 던지는 활동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철학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물쇠다.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일부 식자층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하는 자물쇠다. 아니면 시계다. 난해한 철학용어로 채워진 강의 들을 때면 자꾸 눈이 가게 되는 시계다. 이렇게 철학은, 각종 철학입문서에서조차도 어렵고 재미없는 공부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학사, 개념분석과 같이 곧장 철학으로 들어가는 문은 준엄하고 고압적이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드루아는 회전문과 같이 부드럽게 철학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철학하는 체험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철학하기의 작은 회전문은 친숙한 행동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 한 체험을 직접 하게 한다. 그래서 엉뚱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의도적이고 황당한 무질서를 겪게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놀라움'을 찾게 된다. 여기서 철학은 더 이상 공부라 아니다. 드루아는 우리들에게 자기이름 짓기, 나라 세우기, 동물 되어보기, 시간표 바꾸기, 접속 끊기, 가짜 자연법칙 만들기와 같은 황당한 사고실험을 제안한다. 가능한 친구들과 같이 이와 같은 64가지 철학체험을 직접 해보고 그 경험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드루아가 말하는 철학하기의 체험이다. 이 책은 본격적인 철학적 고민들을 같이 하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철학을 향해 떠나는 차의 시동을 걸게 해준다. 그것도 실감나게 몸소 체험하게 하면서. 이렇게 철학여행을 시작하는 데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약간의 '미친 짓'을 하겠다는 각오와 타성에서 벗어나겠다는 용기는 필요하다.

- 추천자 : 이진남(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사회과학 분야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베른하르트 부엨/유영미/뜨인돌 2014.5.28.발행/164쪽/11,000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프란시스코 페레著)’라는 책을 읽은 분이라면 함께 보기를 바라는 책이다.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 어떤 형태의 권위도 폭력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현재의 교육이 원칙과 관용, 훈련과 사랑, 일관성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진단한다. 어른들이 엄격한 교육을 버리고 지나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안 아이들은 정작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교육을 아이들의 도덕성과 질서를 잡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감정을 읽어 주고 위로하기에 바쁘다고 진단한다. 감정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이의 인성 발달에 큰 문제가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노력이 부족하고 버릇이 없고 집중하지 못한다. 자율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 무질서한 행동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저자는 독일 명문 살렘학교 교장으로 히틀러 정권 이후 확산된 자유주의 교육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 결과 아이들은 예절과 배려를 모른 채 컸고, 그 결과 자신의 욕망만 남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다. 아이는 찌든 구석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었고, 부모는 아이의 끝도 없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자유주의 교육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연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의 내용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참고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 추천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부 교수)

사회과학 분야



콘트라리언 이신영/진성복스 2014.6.9.발행/407쪽/17,000원

“새로운 시대는 역으로 시작하라”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은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상으로 ‘콘트라리언’을 제시하고 있다. ‘콘트라리언’은 ‘남들의 의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저자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30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콘트라리언들을 만나고 인터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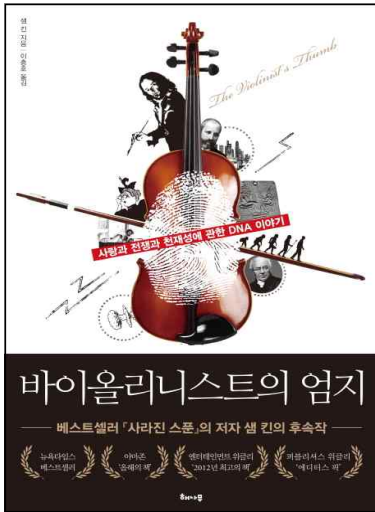
이 책에서 ‘새로운 인재’는 ‘간판’이나 ‘이름값’에 매몰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신만의 장점을 성공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들라고 이야기한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역’,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꾼 사람들을 뜻하는 ‘패’, 지식, 권위 등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을 뜻하는 ‘탈’의 세 가지 법칙을 통해 세계적인 대가들과 석학들의 리얼한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다.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우직하고, 꾸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 한다. 하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아날로그적인 성공법칙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제 더 이상 ‘1만 시간의 법칙’은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역발상의 지혜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인재, 즉 콘트라리언이 디지털시대의 성공법칙이다. 콘트라리언은 지금까지 많은 책에 얘기했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지루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역(逆)’, ‘패(敗)’, ‘탈(脫)’이라는 기발한 세 가지 법칙을 통해 창조 경영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꾼 사람들, 지식, 권위 등을 내려놓은 사람들, 이런 콘트라리언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 선진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인재상을 만나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책이다.

- 추천자 : 전형구(독서경영 칼럼니스트)

자연과학 분야



바이올리니스트의 엄지
샘 킨/이중호/북하우스 퍼블리셔스(해나무)
2014.6.10.발행/508쪽/20,000원

1955년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사망하자, 검안을 맡은 의사는 밀려드는 유혹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유언대로 그냥 화장을 한다면, 인류의 삶을 바꾼 인물의 천재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래서 의사는 유족 몰래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냈다. 나중에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 뇌는 지금까지 남아서 연구에 쓰이고 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도 별 차이가 없는 듯 했기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발달한 뇌 영상 기술 덕분에 천재성의 근원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천재 음악가인 파가니니는 연주를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뛰어났다. 그는 손가락 관절이 대단히 유연했다. 엄지손가락을 손등으로 구부려서 새끼손가락에 닿게 할 수 있었고,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손가락을 벌릴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못하는 연주를 해낼 수 있었다. 파가니니의 놀라운 손가락은 사실 유전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는 이런 유명 인사들뿐 아니라, 유전자와 DNA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이 책의 특징은 그들의 이야기를 놀라울 만치 상세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시콜콜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이야기들을 놀라운 솜씨로 엮으면서, 유전자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천재성과 광기, 전쟁, 개인과 사회의 갈등, 모험, 과학자들의 정직함과 비열함 등 사람들의 갖가지 모습이 DNA 연구의 역사를 배경 삼아 펼쳐진다. 읽다보면, 유전자와 DNA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

- 추천자 : 이한음(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유아아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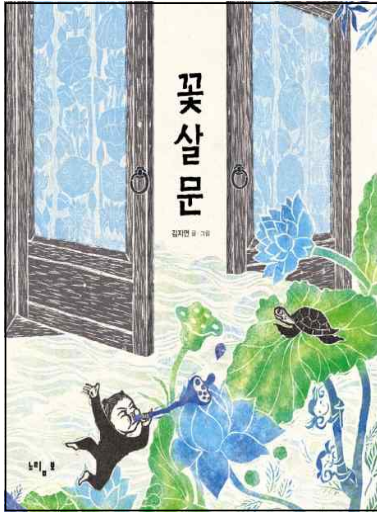
도플갱어를 잡아라
이운 글, 홍정선 그림/웅진씽크빅(웅진주니어)
2014.5.28.발행/124쪽/9,500원

요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들 참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첨단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삶이 어느 정도 여유와 휴식이 생길 만도 한데, 오히려 챙겨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쌓여가기만 한다. 한번쯤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뒤집어보고, 정면 응시해 보는 일. 어찌 보면 철학 분야에서나 다를 법한 심오하고 진지한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독특한 동화책 한 권을 만났다.

작가는 기발한 환상과 재미있는 설정으로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네 편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자신의 꿈을 잃고 바쁘게 살다가 오히려 진짜 자신의 꿈대로 살아가는 도플갱어를 만나 쫓기는 주인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 달나라 토끼가 지구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는 장면에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하고, 신발 한 켤레에 담긴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미로 속을 헤매는 쥐를 보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두려움에 맞서는 진정한 용기를 알게 된다. 아무래도 작가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재주를 타고 난 것 같다. 이 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과제를 던져주는 책이다. 나도 언제 도플갱어가 나타나 가짜 나를 쫓아낼지도 모르니 얼른 나의 본모습을 찾아 나서야겠다.

- 추천자 : 김대경(서울 성수고 교사)



꽃살문

김지연 글, 그림/느림보

2014.5.26. 발행/36쪽/12,000원

근사하고 세련된 외국 그림책에 취해 있다가 한창 미감을 형성해가는 우리 아이들에 생각이 미치면 아찔할 때가 있다.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서양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미감을 갈고 닦는 현실에 뒷머리가 쭈뼛해지곤 하는 것이다. ‘우리 고유 이미지의 그림책 출간이 절실하다!’ 그것은 지난 4월 런던도서전 ‘한국을 나간 그림책’ 전시 현장을 지키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일수록 우리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세계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오래된 진리 이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갈증 속에서 만난 그림책 <꽃살문>은 반가운 역작이다. ‘십장생’과 ‘꽃살문’이라는 우리 전통문화 소재를 세련된 색감과 이미지로 풀어내고 조합한 판화 그림이 더없이 풍성하다. 옛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동자 아이가 술래가 되어 꽃살문 안팎에 숨은 십장생 즉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을 상징하는 물 · 소나무 · 불로초 · 바위 · 사슴 · 학 · 구름 · 대나무 · 해 · 거북이 등을 찾는 여정이 나름대로 흥미진진하고, 특히 네 가지 꽃살문이 차례차례 열리면서 펼쳐지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네 장면의 완성도 높은 이미지는 ‘저렴하게 소장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의 그림책을 구현한다. 무엇보다 이 그림책을 본 아이들은 최소한 청 · 백 · 적 · 흑 · 황 오방색의 조합을 낯설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책을 본 아이들은 여행길의 산속 절집에서 맛닥뜨린 꽃살문의 무늬를 꼼꼼 들여다볼 것이며, 경복궁 자경전 굴뚝을 골똥히 들여다보며 온갖 옛 기물에 새겨지고 수놓인 열 가지 형상을 손꼽아 챙겨볼 것이다. 그렇게 당당한 미감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 추천자 : 이상희(그림책 작가, 시인)